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욕설 의미 교육의 효과

김 평 원 | 인천대학교

목 차

- | | |
|--------------------|---------------------|
| I. 서론 | IV. 욕설 의미 교육의 효과 분석 |
| II. 기존의 언어폭력 개선 교육 | V. 결론 |
| III. 욕설의 의미 교육 | |

국 문 초 록

2012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추가된 언어폭력 관련 성취기준은 이후 국어과 교육과정에 계승되었다. 이 연구는 언어폭력과 욕설 현상을 다룬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욕설의 의미를 교육하여 욕설을 혐오 자극으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법의 효과를 뇌파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그 결과물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성과는 학술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욕설의 의미를 교육하여 욕설을 혐오 자극으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법의 효과를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국어 교과서에 반영된 언어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교수·학습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언어폭력, 욕설, 뇌파, 사건 유발 전위(ERP)

I. 서론

욕설(辱說)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로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만(국립국어원, 1999), 일상에서 쓰이는 욕설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욕설은 언어의 부정적인 현상인 동시에 일종의 사회방언으로 욕설의 남용 문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에 만연된 현상이다. 욕설에 관한 시각은 언어 순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정적 관점(박갑수, 2002 ; 양명화·강희숙, 2010), 카타르시스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욕설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관점(김열규, 1997 ; 강기수·이점식, 2011)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 발표된 욕설에 관한 연구들은 부정적 관점에서 청소년 욕설 실태를 고발하는 접근이 대부분이다.

최근 욕설은 학교폭력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학교폭력은 폭행과 같은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언어폭력과 왕따와 정신적 폭력으로 진화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일선 학교의 언어폭력 예방 및 폭력적 언어문화 개선 교육은 교과보다는 주로 비교과 캠페인 활동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욕설 사용 실태를 반성하고 자신의 언어생활을 반성하는 비교과 활동만으로 학생들의 언어폭력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이제 언어폭력과 욕설 현상은 언어문화 개선 차원의 문제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인성 교육은 물론, 교과 내용과 융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의 가장 흔한 유형인 언어폭력과 욕설 현상을 다룬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학교폭력처럼 강자가 약자를 해코지하는 행동은 시대, 장소, 연령을 초월해서 존재해 왔기 때문에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욕설과 언어폭력과 같은 네거티브 콘텐츠(Negative Contents)를 적극적으로 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욕설의 의미를 교육하여 욕설을 혐오 자극으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법의 효과를 뇌파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그 결과물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II. 기존의 언어폭력 개선 교육

1.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폭력

2012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회문제로 비화된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2011 개정 교육과정을 프로젝트형 인성 교

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수시 개정하게 되었다. 중학교 국어과에서는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언어 표현으로 순화하여 말한다.’는 성취기준을 추가하였고, 학습활동 사례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 폭력적인 언어의 실태와 피해를 인식하고 실천과 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 모둠별로 폭력적인 언어 사용 영역을 나누어 조사하게 한다. (학교 생활, 대중매체 - 가요, 연예 프로그램, 통신 수단 - 휴대폰 메시지, 카톡 메시지, 인터넷 댓글) 다양한 영역의 폭력적인 언어 양상을 조사한 후 그 피해와 결과에 대하여 개인적 차원, 대인 관계 차원, 사회 전반 차원으로 다양하게 나누어 생각하고 발표하게 한다. 덧붙여 폭력적인 언어 사례를 긍정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언어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모둠별로 진행하고 바꾸기 전후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 바른 언어의 좋은 점을 깨닫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업 후에도 상호 존중의 언어, 비폭력 언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바른 말 지킴이 활동’을 학생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격려하고, 학급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에 ‘선플 달기 운동’을 진행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벌칙이나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2012 개정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화법 과목에서는 ‘부정적 언어 표현의 폐해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성취기준을 추가하였고 학습활동 사례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

- 언어 사용의 부정적 문제 양상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말하는 습관을 기르며,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형성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한다.
- 부정적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와 다큐멘터리를 감상하고 느낌을 짧게 나눈다.
- 모둠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언어의 유형(욕설, 차별적 언어, 방언, 은어 등)과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발표한다. 또한 모둠별로나 학급 전체적으로 긍정적 언어로 교정하는 활동도 함께 한다. 발표와 교정 활동에 대해서는 자기 평가, 상호 평가, 교사 평가를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언어의 습관화를 위해 ‘바른 언어생활’에 대한 표어 만들

기 대회를 하고 우수한 표어를 학급이나 학교 단위로 전시하고 ‘바른말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2012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2. 언어폭력 개선 교육의 한계

폭행과 언어폭력은 서로 다른 유형의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이 폭행으로 발전하거나 폭행과 언어폭력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언어폭력은 욕설 어휘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청소년들 사이에 일상어로 자리 잡은 욕설은 언어문화 개선 차원의 문제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교육부 역시 교육 현장에 만연한 언어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현장에 제시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상화된 욕설, 비속어가 사이버 폭력 등 학교폭력 전반으로 전이되는 점을 감안하여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와 같은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장려하고, ‘언어문화 개선 선도 학교’를 계속 운영하여 언어문화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4).¹⁾

언어폭력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교육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를 평가해야 한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이나 이를 토대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들은 전형적인 ‘위협 소구(fear appeal)’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즉, 욕설이 일상화된 학교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고, 욕설이 정신과 신체에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를 실험과 전문가 견해를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도록 설득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위협 소구를 활용한 모든 설득 전략이 행동의 변화를 보장할 수 없듯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욕설 현상은 위협 소구 방식의 사회적 캠페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올바른 언어생활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1) 외국도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료들 간의 괴롭힘을 네 가지 유형인 물리적, 언어적, 대인 관계적, 사이버상 괴롭힘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언어적 괴롭힘과 대인 관계적 괴롭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물리적 괴롭힘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고하였다(Wang, et. al, 2009 : 368).

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사회적 캠페인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김평원, 2012, 28~30).²⁾

III. 욕설의 의미 교육

1. 욕설 어휘와 언어폭력

욕설의 폭력성은 맥락 의존적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의 속성을 중심으로 욕설 어휘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욕을 해야겠다’는 화자의 의도와 ‘상처 받았다’는 청자의 모멸감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표Ⅲ-1>은 화자와 청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욕설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김평원, 2012 : 5).

<표 Ⅲ-1> 화자와 청자의 인식 여부에 따른 욕설의 분류

		화자	
		욕설로 인식함	욕설로 인식하지 못함
청자	욕설로 인식함	A형 (상호적 언어폭력)	B형 (일방적 언어폭력)
	욕설로 인식하지 못함	C형 (인식하지 못한 언어폭력)	D형 (일상어)

A형 욕설은 욕을 하는 사람과 욕을 수용하는 하는 사람 모두 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이다. 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때 일어나는 상호 주고받는 폭력 상황에서 발생한다. B형 욕설은 욕을 하는 사람은 욕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청자가 이를 욕설이라고

2) 욕설 현상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태도 교육법’, ‘교과 통합 교육법’, ‘프로젝트법’으로 구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검증한 선행 연구에서는, 욕설 실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반성하는 사회적 캠페인 방식의 태도 교육법이 학생들의 욕설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토론 논술 교육과 연계한 통합 교육법 역시 프로그램 직후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으나, 한 학기 뒤에 반복 측정된 결과 다시 이전 상태로 회귀하였다. 결국 장기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욕설에 관해 탐구하는 프로젝트 방법이었다(김평원, 2012).

인식하는 경우이다. B형 욕설에는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배설한 욕설을 제3자가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상호 간 언어폭력인 A형 못지 않게,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성립하는 B형 욕설이 문제가 된다. C형 욕설은 욕을 발화하는 사람은 욕이라고 인식했지만 청자가 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청자가 화자의 비아냥거리는 공격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라서 청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 D형 욕설은 화자와 청자가 모두 욕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존나’와 ‘씨발’과 같이 정도부사와 감탄사 형태로 일상어처럼 쓰이는 경우와, 남성들을 중심으로 친근한 사이에 주고받는 욕설들이 이에 해당된다.

2. 욕설의 의미 교육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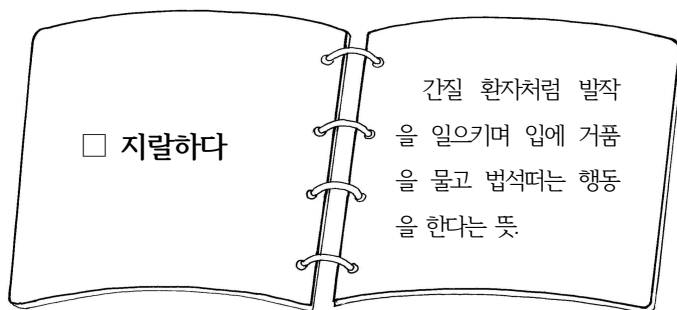
욕설 의미 교육은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욕설의 뜻을 가르쳐 혐오 자극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하는 욕설 어휘 ‘존나’는 매우, 훨씬과 같은 정도부사로 사용되고 있다.³⁾ 욕설 의미 교육은 모든 욕설 어휘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특히 D형 욕설로 사용되는 정도부사 ‘존나’와 호칭어 ‘개새끼’와 같은 욕설을 혐오 자극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평원, 2014). 욕설의 의미 교육은 위협 소구 수준이 낮은 자료부터, 위협 소구 수준이 높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III-1] 좌측은 욕설 어휘 ‘개새끼’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위협 소구 수준이 낮은 교육 자료이며, 우측은 욕설 어휘 ‘존나’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는 위협 소구 수준이 높은 자료이다. 전자는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후자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다.

3) 2011년 언어문화 개선 9개 선도 학교 및 27개 선도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욕설 어휘별로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존나’는 다양한 정도부사 어휘를 대용하는 욕설 어휘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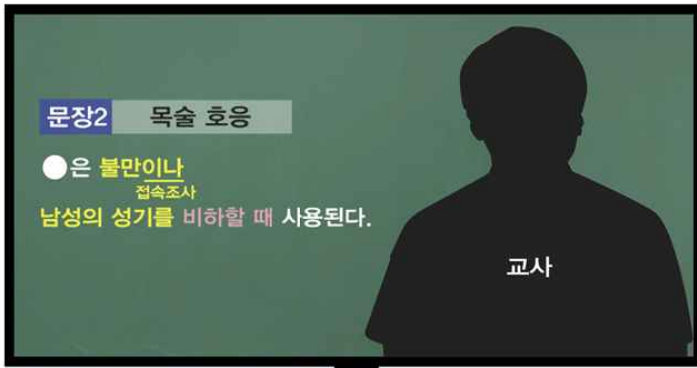
[그림 Ⅲ-1] 위협 소구 수준이 낮은 자료(좌측)와 높은 자료(우측)

욕설의 의미를 교육하는 방법은 욕설 어휘 카드를 통해 그 뜻을 알려주는 간단한 방법뿐만 아니라(그림 Ⅲ-2), 욕설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을 활용하여 문장 구조를 설명하는 국어 교과 내 통합 방법(그림 Ⅲ-3), 나아가 혐오스러운 뜻을 가진 욕설 어휘의 특성에 관해 직접 연구하고 글을 쓰고 발표하는 수준으로 설계할 수 있다.⁴⁾



[그림 Ⅲ-2] 욕설 어휘 카드 사례

4) 욕설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을 활용하여 국어과 문법 수업에 적용한 사례는 다음 동영상을 참조할 수 있다.
 ※ 송슬기 선생님의 실험용 동영상 https://youtu.be/ZGt_4fFd288



[그림 III-3] 욱설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을 활용한 국어 문법 교육 사례

IV. 욱설 의미 교육의 효과 분석

1. 실험 설계

욕설 의미 교육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인천광역시의 한 단위학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0명을 선정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각각 30명씩 무작위 배당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균등하게 할당하여 한 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 하였으며, 국어 성적을 비롯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에 차이가 없도록 배정하였다. 실험은 학교장 승인과 대학 IRB 심사를 거쳐 피험자 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은 후 시작하였다.⁵⁾

대조군 학생들에게는 사회적 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프로그램을 하루 1시간씩 4일간 제공하였고, 실험군 학생들에게는 대조군에게 제공한 프로그램에 더하여 욱설의 의미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매일 1시간씩을 더 추가로 제공하였다.

사회적 캠페인 수준의 자료를 활용한 교육은 청소년 욱설 문제를 다룬 KBS 다큐멘터리(2일), 만화 텍스트(1일), 상황 드라마(1일) 등을

5) 이 학교는 필자의 제안에 따라 연구 동아리인 ‘언어폭력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청소년 욱설 현상을 청소년들이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해마다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개발한 언어폭력 자료집은 중학교 자유학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 107~111).

보여준 다음에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후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발표를 하도록 진행하였다. 피험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학별 고사(논술, 구술)를 대비하는 특강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사회적 캠페인 수준의 프로그램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자료집(그림 IV-1)과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자료집(그림 IV-2)을 활용하였다.⁶⁾

공포 영화를 찍고 싶지 않아



<그림 IV-1>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용 자료 사례(김정우 외 2011)

6) 수업에 활용한 프로그램은 공공 기관에서 개발한 자료집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문화 개선 자료들로는 상황을 만화 텍스트를 활용하여 제시한 자료가 있으며(김정우 외, 2011), 학생 연기자들을 활용하여 제작한 드라마 자료도 역시 널리 활용되고 있다(민병근 외 2016).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각종 자료집도 단위학교에 배포되고 있다.



<그림 IV-2> 청소년 대화 개선을 위한 동영상 지도 자료 사례(민병곤 외, 2016)

태호: (눈을 피하며)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되잖아. (빗자루로 성규를 가리키며) 넌 바닥 쪽 청소하고, (빗자루로 민우를 가리키며) 넌 창문 닦아. 난 교실 앞뒤 할 테니까.

성규: (어이없어 하며) 야, 애 네 맘대로 나눠. 제대로 나눠야지. 바닥 쪽 청소는 힘들다고 먼지도 많고, 책상도 옮겨야 되고, 걸레질도 해야.....

태호: (말 자르며, 빗자루로 책상을 톡톡 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같은 데만 하니까 안 끝나잖아. 나눠서 해야지 빨리 끝나지.

민우: 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하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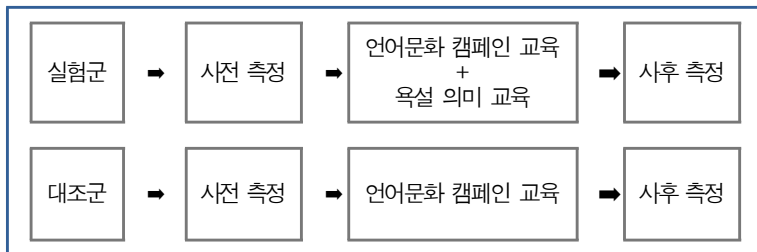
- 동영상 전사본(민병곤 외, 2016)

실험군에게는 대조군에는 제공하지 않았던 욕설 의미 교육을 현직 국어 교사가 직접 제공하였다. 실험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최근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출제되고 있는 문법성 판단 문항 유형을 대비하는 특강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그림 IV-3> 실험군에게 제공된 교육 자료(출연: 승슬기 교사)

욕설 의미 교육의 처치 효과는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을 비교하여 욕설 어휘를 혐오 자극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욕설 어휘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은 태도 설문지에 스스로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뇌파를 측정하여 피험자의 본능적인 반응을 직접 확인하였다.⁷⁾ 본 연구의 실험 설계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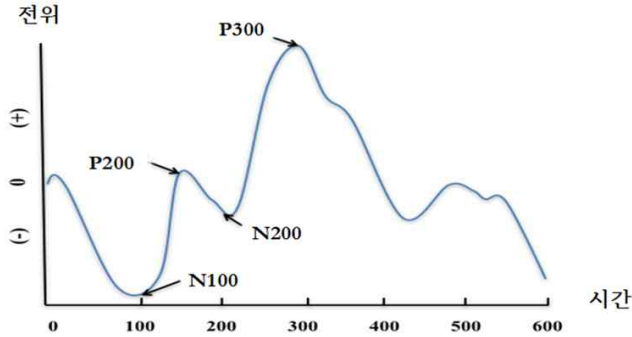
[그림 IV-4] 욕설 의미 교육의 효과 검증 절차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실험 처치 효과는 욕설 어휘를 혐오 자극으로 인식하는

7) 본 연구의 관심은 사전 뇌파와 사후 뇌파를 측정에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P300 피크 출현 여부를 사전과 사후 측정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다.

정도를 사건 유발 뇌파 전위(ERP, Event-Related Potential)의 진폭과 발생 시간 값을 통해 검증하였다. 유발 전위는 특정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자극을 반복 제시한 후, 이 자극 처리와 관련된 뇌의 전기적 활동만을 얻은 파형을 말한다(그림 IV-5).



<그림 IV-5> 사건 유발 전위의 피크

사건 유발 전위 분석법은 어떠한 자극에 대한 뇌파 반응의 결과를 평균한 후 나타나는 전위차를 의미하며, N100, N200, P300, N400, P600, P800 등의 여러 개의 피크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N200은 자극 후 200ms정도 후에 음전위(negative)로 나타나는 ERP를 지칭한다.

각 피크들은 정보 처리에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P300은 자극 제시 후 약 300ms 지점에 나타나는 양(Positive, 상향)의 피크를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P300은 정보처리과정 중 자극에 대한 주의력과 자극 인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검증된 지표이다. 주의력, 기억력, 인지능력 등이 높을수록 P300의 진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P300이 발생한 시점(Latency)이 빨라지게 된다(Sutton, S. 외, 1965). P300은 드문 자극과 흔한 자극을 섞어서 무작위로 반복 제시하는 Oddball 패러다임을 적용했을 때 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300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 QEEG-8(모델명: LXE, LAXTHA Inc.)장비를 이용하였다. 이 뇌파 측정기는 256Hz 샘플링 주파수, 0.5~50의 통과 필터, 12-bit AD 변환에 의해 뇌파 신호를 컴

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피험자의 머리 표면 8곳에 모노폴라 방식으로 뇌파를 측정하였으며, 10/20 국제 전극 배치법에 따라 차례로 Fp1, Fp1, Fp2, F3, F4, T3, T4, O1, O2 위치에 측정 전극을 부착하였다. 기준 전극은 A1, 접지 전극은 뒷목에 부착하였다. 뇌파 측정 자극은 시각 자극을 이용한 Oddball 패러다임에 따라 8:2의 비율로 일상어 자극(매우, 훨씬)과 욕설 자극(존나)의 비율을 맞추고, 각 자극은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였다. 피험자가 시각 자극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상어와 욕설 자극 이외에 목표 자극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반응키를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그림 IV-6>은 정도부사 어휘를 보았을 때 발생하는 사건 유발 뇌파를 측정하는 장면이고, <그림 IV-7>은 정도부사 대신 사용되는 욕설 어휘 '존나'를 보았을 때 발생하는 사건 유발 뇌파를 측정하는 장면이다.⁸⁾



<그림 IV-6> 일반 자극의 ERP 측정 장면

8) 재현성이 매우 뛰어난 ERP Oddball 패러다임은 1965년 『사이언스지』에 소개된 이후 50년 이상 사용된 방법이다(Sutton, S. 외, 1965). 이미 의학이나 뇌과학 분야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험 사진을 논문에 소개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독자들이 교과교육 분야의 전문가임을 고려하여 ERP 실험 장면을 직접 제시하였다. 이는 관심 있는 후속 연구자들이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피험자와 피험자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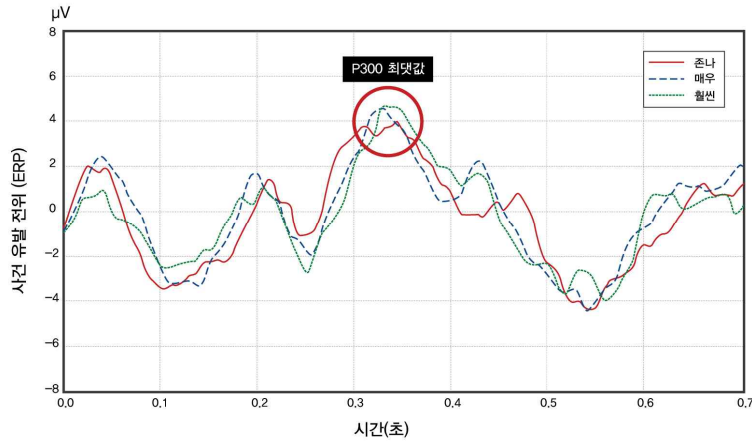


<그림 IV-7> 욕설 자극의 ERP 측정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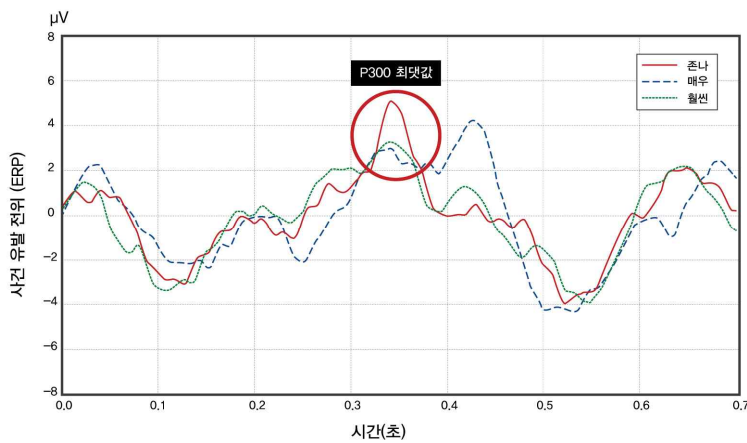
3. 분석 결과

ERP P300 지표는 욕설 어휘를 보자마자 0.3초 후에 발생하는 본능적인 사건 유발 뇌파이므로 욕설 어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용한 지표이다. 먼저 대조군 학생들의 뇌파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비교 결과 P300 피크가 변화한 피험자가 전혀 없었다. 이는 사회적 캠페인 프로그램을 제공했음에도 여전히 존나, 매우, 월씬을 동일한 자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캠페인 프로그램만으로는 존나라는 욕설 어휘를 혐오스럽게 인식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욕설 의미 교육을 추가로 제공했던 실험군의 학생들의 28명 중 19명의 P300 피크가 ERP 뇌파 그래프 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그림 IV-8, 9). 피험자 평균값 역시 최댓값이 의미 있게 변화하였다. ‘매우’, ‘월씬’의 P300 진폭은 실험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4.6 μ V \rightarrow 4.05.1 μ V; 4.7 μ V \rightarrow 4.3 μ V), 존나의 P300 진폭은 크게 상승한 것이다(4.0 μ V \rightarrow 5.1 μ V).



<그림 IV-8> 욕설 어휘 '존나' 에 관한 의미 교육 전 사건 유발 전위(평균값)



<그림 IV-9> 욕설 어휘 '존나' 에 관한 의미 교육 후 사건 유발 전위(평균값)

이는 '존나'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300밀리초 즉 0.3초 이내에 본능적으로 발생하는 뇌파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존나'를 단순한 정도부사가 아니라 혐오 자극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9>를 보면 욕설 의미 교육을 통해 욕설 어휘를 혐오 자극으로 인식한 실험군 피험자의 P300 최댓값이 치솟는 변화가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언어폭력’이라는 핵심어가 성취기준에 반영되었고 다양한 검인정 국어 교과서에도 반영되었다. 이제 국어과 교육을 통해 폭력적인 언어 문화에 대해 성찰하고 연구하는 체험 중심의 실천적 교육 활동을 더욱 권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캠페인 프로그램만으로는 욕설 어휘를 혐오 자극으로 인식시키지 못함을 과학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미 욕설에 오염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욕설의 의미를 교육하여 욕설을 혐오스러운 자극으로 인식하게 해야 욕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성과는 학술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욕설의 의미를 교육하여 욕설을 혐오 자극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ERP 측정법은 이미 뇌과학 분야에서 검증된 방법이 기 때문에 후속 연구자들이 유사한 연구 설계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국어 교과서에 반영된 언어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교수·학습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구안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는 언어폭력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그 결과물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동시에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욕설 어휘에 ERP 분석 방법을 적용함은 물론 욕설 의미 교육의 구체적인 전략과 효과 검증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생리학, 계측공학, 심리학, 국어교육학 등과 관련이 있으며, 고등학교 국어, 사회, 도덕, 수학, 생명과학, 물리 교과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방법은 청소년 욕설 현상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중학교 자유학기 주제 탐구 활동 활동과 고등학교 과제연구, R&E(Research and Education)는 물론

국어, 사회, 도덕, 수학, 물리, 생명과학 교과 수업에서 융합적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논문 접수일 : 2017. 11. 20.
- ※ 논문 수정일 : 2017. 12. 20.
- ※ 게재 확정일 : 2017. 12. 26.

<참고문헌>

- 강기수·이점식(2011), 「욕(辱)의 교육인간학적 기능」, 『석당논총』 5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537~579쪽.
- 김열규(1997), 『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 경기: 사계절.
- 교육과학기술부(2012), 『프로젝트형 인성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정우 외(2011), 『바람직한 학생 언어 사랑의 교사 언어』,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김평원(2012), 「청소년 욕설 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화법연구』 20, 한국화법학회, 9~37쪽.
- 김평원(2014), 「언어폭력지수 개발을 위한 욕설 자극 반응의 측정과 분석」, 『화법연구』 26, 한국화법학회, 255~287쪽.
- 민병곤 외(2016),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지도 자료』, 서울: 국립국어원.
- 박갑수(2002), 「청소년의 언어 행태와 그 개선 방안」, 『선청어문』 3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5~28쪽.
- 박인기(2012), 「욕설언어현상에 대한 교육적 문화적 진단과 대안 모색」, 『화법연구』 20, 한국화법학회, 101~139쪽.
- 양명희·강희숙(2010), 『학교생활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 및 순화 대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6),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수업 모형 연구』, 수탁 연구 CR 2016-2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청소년 욕설 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메타 분석』, 연구보고 RRI 2012-8,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Sutton, S., Braren, M., Zubin, J., & John, E. R. (1965), Evoked-potential correlates of stimulus uncertainty. *Science*, 150(3700), 1187~1188.
- Wang, J., Iannotti, R. J., & Nansel, T. R. (2009), School Bullying Among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Physical, Verbal, Relational, and Cybe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4), 368~375.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o educate the Meaning of Swear-word

Pyoung-Won, Kim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there is a lack of concrete contents and methods dealing with language violence and swear-word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makes sense of profanity as abhorrence stimulation by teaching the meaning of profanity through the analysis of Electroencephalogram. The next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result as educationall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divided into academic and educational aspects. In the academic aspect, the effect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educates the meaning of profanity and perceives profanity as aversion is scientifically verified through event evoked potential analysis. Secondly, pedagogical contents, which can be used for teaching and learning, is presented in terms of educational violence in Korean textbooks.

Key words: Verbal violence, Swear-word, Electroencephalogram, Event-related potentia(ERP).